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9일(수)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소통기획담당관	담당자	• 홍보콘텐츠담당 김진국 ☎ 440-8301 • 담당자 정경숙 ☎ 440-8304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색깔 담은 여행서 · 인터뷰 모음집 발간

- 강화도 역사 · 문화 · 여행안내서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 -
- 인천사람 인터뷰 모음집 <인천, 사람 2 : 바다 땅 숨 삶, 환경특별시 사람들> -
- 네이버 · YES 24 · 교보문고 등 포털 및 인터넷 서점 10곳 전자책으로 출간 -

인천광역시가 인천의 정체성과 인천시민의 삶을 담은 여행서와 인터뷰 모음집 2종을 펴냈다.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는 강화도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강화도 역사 여행서이며 <인천, 사람 2 : 바다 땅 숨 삶, 환경특별시 사람들>은 친환경을 실천하는 인천 시민의 이야기를 묶은 인터뷰 모음집이다.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숨결과, 고려 · 조선 등 우리나라 전(全)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깃든 ‘민족의 성지’다. 최근 들어 먹거리, 놀거리,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더욱 매력 있는 섬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는 강화도의 역사 · 문화 · 여행 가이드

북으로, 맛집·분위기 좋은 카페·캠핑장·쾌적한 숙박시설 등을 별도의 부록에 담아 발간했다.

<인천, 사람 2 : 바다 땅 숨 삶, 환경특별시 사람들>은 인천광역시가 2019년 발행한 <인천, 사람>에 이은 두 번째 인천시민 인터뷰 모음집이다.

바다와 땅을 경건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숨 쉬는 것을 당연히 하지 않으며, 자연을 소중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16명 환경특별시민의 이야기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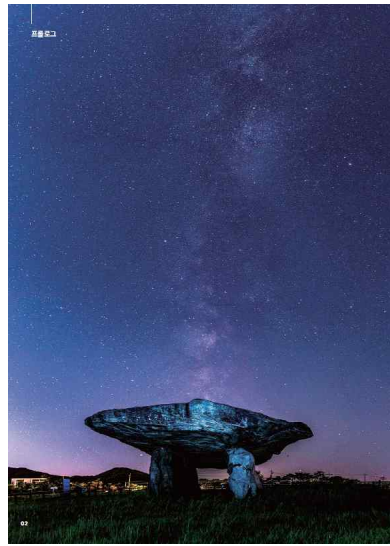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서적은 인천시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네이버·YES 24·교보문고 등 포털 및 인터넷 서점 10곳에서 전자책으로도 만나 볼 수 있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이번 신간서적은 우리나라 전 역사를 오롯이 품은 강화도와 인천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물”이라며 “인천에 대한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단행본 발간사업은 매년 숨겨진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발간한 <바람결 따라 골목길 걸어>, <인천의 맛 : 바다와 땅이 키우고, 사람이 만든다>를 비롯해 그동안 <올드 벳 뉴(OLD BUT NEW) : 오래된 그래서 새로운>, <까치밭로 본 인천> <그 길, 인천> 등 지금까지 12종의 책을 펴냈다.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 표지



“어서 오시거,  
여기는 강화입니다.”

함경단과 삼랑성.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190여 개에 이르는 고인돌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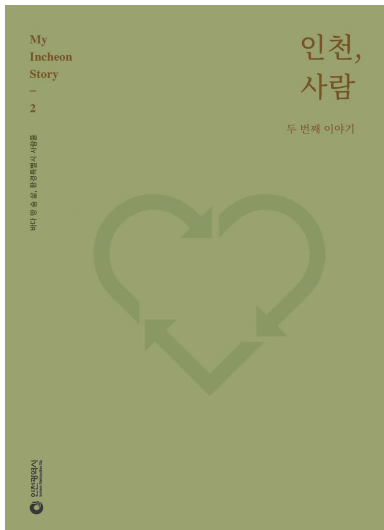
거니는 말갈마다 강화도는, 역사가 흐르고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전통사의  
차와 함께, 송동공의 우물에서도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뿜뿜  
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선사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까지 이르기  
까지 강화도는 우리나라 전체(전)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뚜렷 없는 막  
물’이라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강화도에 역사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오늘 강화도는 맛있는 먹거리, 즐거운 놀거리,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넘  
쳐나는 섬으로 꽃피어났습니다. 갯죽대, 꽃게, 갯벌장어, 손부 등 먹거리와  
무지, 속초기우주센터와 비록한 전국에서 유일한 놀이시설이 방문객들을 행  
복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출몰이 있는 캠핑장, 바다가 잘 보이는 펜션에 이  
르기까지 강화도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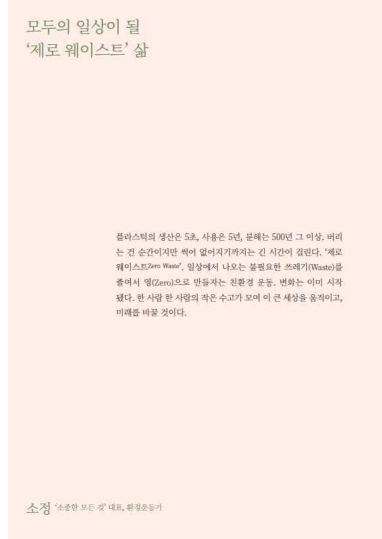
대도시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강화도.  
이 책과 함께 강화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다게 떠나보시게

〈그래, 강화로 떠나보는 거야〉 내지



〈인천, 사람 2 : 바다 땅 숨  
숨 환경특별시 사람들〉 표지



모두의 일상이 될  
‘제로 웨이스트’ 삶

플라스틱의 생산은 5조, 사용은 5억, 분해는 500년 그 이상. 버리  
는 건 순간이지만 해가 없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일상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쓰레기(Waste)를  
줄여서 영(Zero)으로 만들어가는 친환경 운동. 변화는 이미 시작  
됐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수고와 모여 이 큰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를 바꿀 것이다.

소경 '수출한 모든 것' 대표, 환경운동가

〈인천, 사람 2 : 바다 땅 숨 숨 환경특별시 사람들〉 내지